

##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숙소 내에 수영장이 있으며, 도보 15분 정도 거리에 스타벅스와 dutyfree 마켓이 2개가 있으며, 택시 혹은 FB로 15분 정도 거리에 중심가인 시내가 위치하며, 식당, 쇼핑센터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있음
수업	<p>수업은 주로 레벨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수준 별 교재를 사용하며, 하루에 총 8시간 4시간 그룹, 4시간 일대일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한교시당 50분이며, 아침 8시에 수업이 시작되어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5시에 하루 수업이 종료된다.</p> <p>그룹 4시간중 2시간은 토익스피킹 시간이며, MMC시간에는 뮤비 만들기 혹은 광고 찍기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일대일 시간에는 단어 혹은 읽기 능력과 관련된 책을 공부하지만, 수업시간 외에 선생님들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크게 늘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p> <p>수업시간 외에도 복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면 좋다. 선생님들께서 다가와 주시는 편이라 조금만 노력하면 선생님들과 쉽게 친해질수 있음. 본인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음</p>
필드트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티투어 - 유심구매 환전등 기본적인 활동이 이루어짐, 저녁식사는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있음.</li> <li>- 하이킹 - 추가 비용 없음, 산 정상이 다소 춥기 때문에 겉옷정도 챙기면 좋음.</li> <li>- 요트체험 - 추가 비용 없음, 입수를 원할시에는 수영복 필요</li> <li>- 워터파크 - 추가 비용 없음, 수영복 필수</li> </ul>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1월-2월은 필리핀에서의 여름이다. 우리나라의 초여름 늦여름과 비슷하여 낮에는 반팔을 입는 것이 적당하고, 밤에는 다소 쌀쌀하여 겉옷정도는 챙겨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강의실 내부에는 에어컨을 굉장히 잘 틀어 주셔서 추위를 많이 타면 춥다고 느낄수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옷도 어느 정도 챙기는 것이 좋다.</p> <p>밤에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p>
안전	<p>모든 건물에 경찰관들이 있으며, 출입할 경우에 현지인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소지품 검사도 한다. 이런 면에서 딱히 위험하다고 느낀적은 없지만 그래도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p> <p>민가 주변에는 어린아이거지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무섭다고 느낄 수 있다.</p> <p>그리고 택시와 fb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타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p>
숙소	<p>3인 1실로 사용하였고,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부분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한 숙소에는 일반인 관광객들도 있었어서 소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충이 있었다. 방음이 잘되지 않는 편이다.</p> <p>와이파이 이용은 로비에서만 가능하고, 방안에서는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데이터나 통화도 잘 되지 않는다.</p> <p>식사는 세끼 모두 제공되며, 정해진 시간에 가서 먹으면 되고, 한식이 제공된다. 맛도 좋은 편이다.</p>
식사	<p>학교식당 ( ) 외부식당 ( √ ) 기타 ( )</p> <p>초반에는 매 저녁 나가서 사먹는다. 하지만 중반쯤 넘어가면, 학교식당에서 먹고 나가거나, 방에서 쉬기도 한다. 주요 맛집은 하버포인트 쪽에 많고, 현지 맛집은 선생님들께 추천 받으면 좋다.</p> <p>수빅베이 쪽에도 맛있는 식당이 많은 편이다.</p>
교통	<p>하버포인트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주로 fb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FB는 최대 16인 까지 탑승 가능하며 학교에서 나갈 경우에는 200페소 정도 든다. 택시는 주로 4인-6인이 사용하는데 4인일 경우에는 100페소나 150페소로 이용이 가능하다.</p> <p>그리고 하버 포인트에서 숙소로 들어오는 경우 FB를 이용하면 대체적으로 1인당 20페소-25페소정도 내는 가격으로 계산해서 요금을 책정하면 맞다. 타기 전에 위치를 말하고 얼마인지 물어보고 적당한 가격이 책정되면 탑승한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10626페소	
쇼핑비	4216페소	선물비용
교통비	894페소	FB, 택시
기타	4116페소	
합계	19852페소 (496,3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환전은 최대한 큰 단위의 달러로 해오는 것이 환전을 많이 받을수 있음.  
200달러씩 나눠서 필요할 때 2번 환전하면 적당한 편 마지막주에 기념품 구입으로 추가 환전을 50달러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달러 환전후 친구랑 나눠서 사용하면 좋음  
친한 친구가 없다고 걱정할 것 없음, 어차피 전부 혼자 오는 편.  
수건이나 기초 생필품은 주로 걸어서 이동 가능한 DUTY FREE에서 구매하는 것이 저렴  
노트북은 크게 필요 없음, 영상편집이나 수강신청등 평소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음.  
캐리어에 여유가 된다면 라면 포트를 가져가는 것도 꽤나 괜찮은 준비물 중에 하나 12시 이후에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굉장히 잦음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예쁜 옷 보다는 편한옷이 굉장히 좋음.  
주로 현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동전이 많이 생기게 된다 동전지갑은 필수로 챙기는 것이 좋다.  
마지막주에 선생님들 드릴 선물을 한국에서 미리 챙겨온다면 굉장히 좋음. 한국과 관련된 물건도 좋고, 김이나 통조림 반찬도 굉장히 좋음. 특히 김을 굉장히 좋아 하시는데, 현지에서는 가격이 비싼 편임. 선생님들은 그룹 선생님 3분 개인 선생님 4분, 버디 선생님까지 해서 8분정도 됨, 간단한 편지를 쓸수 있는 예쁜 포스트잇이나 작은 편지지를 챙기는 것도 좋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과 영어로 대화 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낯설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문법상 맞는 말인지를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아마 한국에서 내가 영어에 자신감이 없었던 이유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처음에는 영어로 들어오는 모든 문장을 한국어로 변환시키고, 대답을 한국어로 생각한 후에 다시 그것을 영어로 변환하여 대답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었다. 점차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영어로 들어온 문장에 대한 대답을 영어로 생각하여 대답하는 내 모습이 정말 신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 같다.

수업이 8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시간이 하루에 최소 4시간 정도는 주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자주 밖에 나가서 활동을 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주로 하버포인트 주변만 돌아다녔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현지 사람들이 직접 많이 이용하는 식당을 가 보면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고, 한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요트 투어



필리핀 노을



기숙사 전경



학교 식당 음식



Fun Friday - 파자마



Fun Friday - 밝은색옷 입기